

## <NECA 공명: 국내 의료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VRE 관리방안> VRE 관리방안에 관한 공동 합의문

2019년 12월 13일,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제3차 원탁회의 「NECA 공명」에서 국내 의료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VRE 관리방안에 관해 다음과 같은 합의 내용을 도출하였다.

### 1.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은 무엇인가?

-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(vancomycin-resistant enterococci, 이하 VRE)은 반코마이신을 포함한 글리코펩티드(glycopeptide) 항생제에 내성인 장알균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12호에 따라 의료관련감염병 6종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.

의료관련감염병 6종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(VRSA),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(VRE),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(MRSA), 다제내성녹농균(MRPA),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(MRAB),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중(CRE)이 포함됨

### 2. 국내 VRE 감염 현황 및 국내 의료현장의 VRE 관리방법은 무엇인가?

- 2013~2017년도까지 VRE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, 2018년 표본감시결과 재원일수 1,000일 당 VRE 혈액검체 분리율(0.06)보다 혈액 외 검체 분리율(0.48)이 높은 편에 속한다.
- VRE가 가진 반코마이신 내성 유전자(vanA)가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(MRSA)에 전달되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(VRSA)이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VRE 보균자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.
- 국내에서는 VRE 관리를 위해 가능한 1인실 격리를 포함한 수직적 패러다임\*을 적용하고 있다.

#### 6. 선제격리

6.1. 과거 입원 당시 균이 분리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험요인에 따라 가능한 한 선제 격리를 취하고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.

- A. 반코마이신내성(중증도 내성)황색포도알균(VRSA/VISA),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(CRE),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(VRE)의 경우는 위의 사항을 시행하며 이외 다제내성균은 의료기관의 상황(예, 다제내성균 분리 현황, 자원 등)에 따라 시행을 고려한다.

「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」 (2018), p.168

\* 수직적 패러다임(Vertical paradigm): 특정 병원체를 겨냥한 검사와 중재로 능동감시(active surveillance test), 접촉주의, 코호트 혹은 1인실 격리 등을 포함한다.

\* 수평적 패러다임(Horizontal paradigm): 손위생, 클로르헥시딘 목욕, 항생제 스튜어디스 등과 같이 특정 병원체를 겨냥하지 않고 전반적인 감염관리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이다.

### 3. 의료관련감염병 관리를 위한 VRE 격리는 국내 의료현장에서 수용 가능한가?

- 이론적으로 VRE 내성 유전자가 MRSA로 전파되기 어렵고 실제 이로 인한 VRSA 보고 사례가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드물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, 현재 권고되는 VRE 격리의 효과 및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.
- 한정된 병원 자원\*, 병원이나 환자/보호자의 협조 여부\*\*,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OPE(CRE)와 같은 다제내성균 우선순위\*\*\*를 고려했을 때 국내 의료현실을 반영한 근거생성을 통해 VRE를 포함한 주요 항생제내성균의 격리수준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.

\* 격리가능 병실 수, 인력과 물품

\*\* 격리로 인해 환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, 타 의료기관과의 협조(정보공유, 전원),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

\*\*\*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의료관련감염병 고려 시 VRE 격리의 합리성

### 4. 국내 의료현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VRE 관리방안은 무엇인가?

- 국내 의료현장과 국외사례를 참고하여 수직적 패러다임에서 수평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.\*
- \* 단, 감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혈액암 환자 등 면역저하환자를 진료하는 병동에서 VRE 스크리닝과 격리를 고려할 수 있다.
- VRE 등 다제내성균 관리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의료관련감염 예방·관리방안 수립을 위해서 국내 임상현장을 반영한 다학제적 근거생성연구가 필요하다.

※ 본 합의문의 내용은 참여자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, 문장 일부만을 발췌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